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자지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자지고양 편파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를 제작한 후, 한국 대학생들의 자지고양 편파 경향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에게서 자지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대상에 노동자를 포함시켜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과 비교한 연구 2에서도 한국인의 자지고양 경향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지고양 편파 경향이 나타나지 않으며, 심리적 적응과도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지고양 편파 경향의 문화적 차이를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련된 측정 방식과 다양한 비교문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자지고양 편파, 심리적 적응, 비교문화 연구

* 본 연구는 2000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한성열,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syhan@korea.ac.kr

자기고양 편파(self-enhancement bias)란 자기를 실제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Banaji와 Prentice(1994)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에 그 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로 가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고양 편파라는 개념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고, 두 번째 쟁점은 문화에 따라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과 관련된 논란이다.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

Taylor와 Brown(1988)은 그 당시까지의 사회심리학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개관한 후, “비교적 편파적이지 않고 균형잡힌 형태로 자기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잘 적응한 사람이 아니라 주관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p. 196)”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자기고양 편파는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우울하거나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고양 편파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온 사실이다. 그러나 Taylor와 Brown의 진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를 고양하지 않고 정확하게 현실을 지각하는 사람들을 부적응자로 규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상반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Block & Colvin, 1994; Colvin & Block, 1994; Colvin, Block, & Funder, 1995, 1996; Taylor & Brown, 1994; Taylor, Kemeny, Reed, Bower, & Gruenewald, 2000; Zuckerman & Knee, 1996).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이란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잘 적응한 사람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그러한 사회적 기능에 근거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잘 적응한 사람은 자기 존중감을 비롯해 주관적 안녕감, 자부심(pride) 등이 높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 상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적응 지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 상태’라는 공통된 축을 따라 이동하게 되면 자기고양 편파 역시 심리적 적응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적응적이라고 할 수 없는 과대망상이나 독선, 거만함 같은 특성들도 ‘자기에 대한 긍정적 정서 상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고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심리적 적응에 관한 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잘 적응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하며, 자기에 관해 현실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Colvin, Block, & Funder, 1995). 때문에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에 근거한 자기고양 편파가 적응을 촉진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 존중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 이상의 일에 개입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조절에 실패하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며 (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3), 자신의 현재 상태를 비현실적으로 고양시키면 실제로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해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줄어들기도 한다(Higgins, 1996). 또한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자기를 고양하는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거리

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고독감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애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러한 효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Colvin, Block, & Funder, 1995).

이와 달리, 자기고양이 적응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우울하거나 자기 존중감이 낮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한 자기고양 경향을 보인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 학생들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의 학생들이 자신의 지도력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타인과 함께 지내는 능력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혀 없었으며, 60%는 자기들이 상위 10%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MHC, 1996). 미국의 경우 이러한 강한 자기고양 경향은 4살 정도의 어린 아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자기고양 편파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Taylor와 Brown(1988)의 주장처럼 자기고양을 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은 주관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즉,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적응을 초래하는 원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에 관한 한 실제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은 사람들의 자기지각(self-perception) 과정에 대한 상반된 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은 크게 상응 관점(correspondence view)과 왜곡 관점(distortion view)으로 분류할 수 있다(John & Robins, 1994). 상응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자기 지각이 타인을 지각할 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지각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실(reality)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기의 행동과 경험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라는 것이다. 왜곡 관점에서는 이와 달리 사람들의 자기지각은 기본적으로 왜곡되고, 자기편의적(self-serving)이며, 타인에 비해 자신을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긍정적 착각에 근거한 자기고양이 심리적 적응을 촉진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응 관점과 일치하며, 자기고양 편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적응자라는 주장은 왜곡 관점과 일치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기지각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응 관점과 왜곡 관점 모두 ‘준거 문제(criterion problem)’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John & Robins, 1994). 특히, 사람들이 타인에 비해 자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고양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사람들의 자기평가(self-rating)가 무관한 관찰자의 평가보다 긍정적이라는 현상은 자기 쪽에서의 고양 편파라기보다는 관찰자 쪽에서의 가혹(harshness) 평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Campbell & Fehr, 1990; Coyne & Gotlib, 1983; Gotlib & Melzer, 1987).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어떤 특성의 경우에는 무관한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평가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 두 세 명의 대학생들이 간단한 상호작용에 근거해 타인의 전반적인 성격 특질을 평가했을 때, 그들을 ‘객관적 관찰자’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이처럼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자기 평가보다 타인 평가가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형적인 관찰자의 가혹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모집단의 평균치와 같은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린 일반적인 자기평가를

반드시 왜곡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즉, 비현실적으로 낙천적이며,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불행이 닥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 혹은 자기와 타인의 책임 공유를 인정하는 공동 투사 경향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타인에 관한 지식의 결핍에서 유래할 수도 있다(Markus, Smith, & Moreland, 1985).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장되게 평가하는 자기고양 편파를 단순히 자기지각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고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부각된 계기는 Taylor와 Brown(1988)이 자신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사람을 부적응자로 규정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상 자기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이 부적응의 원인이거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실수나 단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좀더 발전적으로 자기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에 근거할 경우,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 걸쳐 자기를 고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수행 결과를 실제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이 부정적인 특성보다 자신을 더 잘 묘사하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Brown, 1986),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일은 잘 할 수 있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Campbell, 1986).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수행결과에 대해서도 외부로 원인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기고양의 기능과 관련하여 Banaji와 Prentice (1994)는 자기고양이란 위협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충동(impulse)과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추동(drive)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기고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과를 무시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과 효능감을 북돋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착각(positive illusion)에 근거한 자기고양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질병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암이나 AIDS에 걸린 환자들 중에서 자신의 증세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이 질병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잔여 수명이 더 길었다. 더 나아가, 강한 자기고양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통해 자기들의 병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 뒤에도 증세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Taylor, Kemeny, Reed, Bower, & Gruenewald, 2000).

자기고양 편파 경향의 문화적 차이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이나 심리적 특성은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인식과 더불어 과거에 보편적인 것으로 가정되었던 심리적 현상들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도식으로 문화적 차이를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은 문화에 따라 자기개념이나 자기를 평가하는 방식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고양 편파 경향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나타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

고 있다(Heine & Lehman, 1995;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Markus & Kitayama, 1991). 다음 인용문들은 이러한 주장을 담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다.

자기고양은 실제로 일본인의 안녕감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을 평균적인 것으로 보는 자기경시(self-effacement)가 대인관계의 조화를 유지하라는 문화적 명령(cultural mandate)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Heine & Lehman, 1995, p. 596).

서구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도록 배우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신적 적응의 지표이다. 하지만, 집단이 강조되는 문화권에서 자신을 좋게 느끼는 것은 부적응의 지표일 수도 있다(Diener & Diener, 1995, p. 653).

자기에 대한 독립적인 관점이 정교화되고 인정되는 문화 집단에서 사회화된 개인들에게서는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경향이 발달하는 반면에, 상호의존적 관점이 정교화되고 인정되는 문화 집단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에게서는 동일한 경향이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문화에 따라 자기에 대한 해석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심리적 적응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체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에 근거해 모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을 좋게 느끼는 것이 부적응의 지표’이거나, ‘긍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정신 건강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주장들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disease or infirmity)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well-being) 상태를 말한다”는 WHO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Seeman, 1989에서 재인용).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개선하는 것이 현상 유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개선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어와 적응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것 자체가 적응을 촉진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Paulhus & Reid, 1991). 부정적인 정보를 거부하든 수용하든 간에 그에 적합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만 적응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에 따른 심리적 차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이 만연하게 됨에 따라 모든 현상들을 도식적으로 처리하려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폐단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을 지지하는 양극적인 관점들은 더욱 강화되고, 도식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무시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Diener와 Diener(1995)는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생활 만족감이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이에 따라 자기 존중감과 상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31개 국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자기의 독립과 자율성 및 독특성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생활 만족감이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자기 존중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생활 만족감과 자기 존중감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 대신 사회적 관계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고, 집단에 참여하여 부분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생활 만족감이 가족 만족감이나 친구 만족감과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조사 결과 이러한 가정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즉, 모든 국가를 통합했을 때, 생활 만족감과 자기 존중감의 상관은 개인주의 국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녀 모두 $r=.53$, $p<.01$). 그러나 생활 만족감과 가족 만족감의 상관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생활 만족감과 친구 만족감의 상관은 가정과 반대로 개인주의 국가들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외에 몇몇 나라들에서는 생활 만족감과 자기 존중감의 상관이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반대되는 경향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들 중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미국(I-C 지수 10)에서 생활 만족감과 자기 존중감의 상관은 남녀 각각 $r=.56$ 과 $r=.60$ 이었다. 그러나 미국 다음으로 I-C 지수가 높은 네덜란드에서는 두 변인의 상관이 남녀 각각 $r=.35$ 와 $r=.47$ 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I-C 지수 3)에서 생활 만족감과 자기 존중감의 상관은 남녀 각각 $r=.57$ 과 $r=.61$ 로 미국 못지않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집단주의 문화권인 탄자니아(I-C 지수 3)에서도 두 변인의 상관은 남녀 각각 $r=.54$ 와 $r=.62$ 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틀로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연구들을 촉진시킨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은 문화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인간 삶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현상이다. 집단 없이 개인만 존재하거나 개인 없이 집단만 존재하는 사회란 있을 수 없다. 다만, 개인과 집단의 관계 맺음 양상이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즉, 개인이 지각하는 집단의 속성이나 개인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집단의 유형, 혹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집단의 강제력이나 집단 내의 개인행동을 조율하는 집단 규범 등이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를 뿐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은 바로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 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항구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 문화권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일 시대, 동일 문화권 안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집단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집단주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도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얼마든지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의 개인들도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고유한 자기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도 자기고양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기고양이란 결과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평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과장된 자기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즉, 평가의 초점이 타인이나 집단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질 경우에 집단주의 문화권의 개인들도 자기고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사

용해 온 언어적 표현들에는 자기고양 경향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표현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다는 발상으로 자기고양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평가’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들은 배짱과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뉘이로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실제로도 한국인은 서구의 산악인들이 놀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세계의 고산준령을 정복함으로써 불굴의 용기를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하는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든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다소 무모하기까지 한 일상적인 표현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한국동란의 폐허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처럼 강인하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한국인의 내면세계에 깔려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은 국내의 광고 기획사에서 1997년 5월 6일에서 12일에 걸쳐 40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 1998). 1997년 12월에 한국이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해 5월 무렵에 한국은 극심한 경제난을 경험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으면서도 조사 대상자의 67%가 1년 후에는 자신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한국 사회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정당한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75%,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78%)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상했

다는 점이야말로 자기고양 편파의 비현실적 낙관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인에게서는 ‘허세’라는 독특한 방어기제가 나타난다는 연구(박영숙, 1990)와 한국인들은 남 앞에서 우쭐대는 자기 과시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최상진, 박정열, 이장주, 1997) 결과들 역시 한국인의 자기고양 편파 경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문화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들은 대체로 그 문화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개인이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체계와 다양한 사회적 관행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에게서 자기고양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고양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한국인들의 자기고양 정도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와의 비교과정을 통해 자기고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연구 1

자기고양 편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알려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연구 1에서는 자기고양 편파 경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를 제작한 후, 심리적 적응 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었다.

John과 Robins(1994)에 따르면, 자기고양의 측정은 준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언제나 제한

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또한 Colvin, Block 과 Funder(1995) 등은 단 하나의 완벽한 자기고양 준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리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기고양을 측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어떤 수행 평가에 참여한 개인들이 자신을 전체 참여자의 평균 이상 (above average)으로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기고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Dunning, Meyerowitz, & Holzberg, 1989). 이러한 방법은 매우 간편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기고양 강도를 서열화하기 어려우며, 때에 따라서는 실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 자기고양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는 난점이 있다. 이러한 점 외에도 연구에 따라 자기고양을 측정하는 방식이 무관한 관찰자의 평가, 전문가의 참여관찰, 면접 평가, 자기 보고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됨으로써 상반된 결과를 낳거나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의 제작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방 법

척도의 문항작성

Taylor와 Brown(1988)은 자기고양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자기고양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자신이 개입한 모든 상황에서 높은 통제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자신의 현재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고양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근거해 본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30개의 문항을 작성한 후, 심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들과의 토론을 거쳐 15개의 문항으로 축소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고양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한 상태에서 내용상 중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하거나 분명치 않은 문항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였다. 그 후, 평정자간 일치도가 높은 문항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모든 문항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표현되었으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2점)', '그렇게 생각한다(3점)', '완전히 그렇게 생각한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사 및 자료분석

15개의 문항으로 작성한 '자기고양 편파 척도'를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352명(남 170명, 여 182명)의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33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문항-총점 상관이 .3이하인 문항은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문항의 평균은 2점 이하였기 때문에 자기고양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거하였다. 남은 13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회전 요인분석에서 고유근(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의 수는 4개로 나타났으나 scree 검사 결과 2개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다. 요인 수를 2개로 지정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직각 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 부하량과 communality를 고려하여 다시 3개의 문항을 추가로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은 10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338명의 점수

표 1. 자기고양 편파 척도의 요인 구조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2. 나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783		.653
4. 나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748		.638
1. 조금만 신경쓴다면 이번 학기의 내 성적은 최상위권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746		.559
5.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내 또래의 누구보다 잘 할 자신이 있다.		.638	.468	.626
10.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일이든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592	.489	.589
7. 나는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최고의 인물이 될 자신이 있다.		.562	.481	.552
8. 지금까지 내 선택이 잘못된 적은 없다.			.851	.732
3. 나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605	.451
9. 나는 앞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보다 앞서 나갈 자신이 있다.		.542	.564	.612
6.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465	.556	.525
고유근(eigen value)		3.41	2.53	
요인 설명량		34.10%	25.28%	59.38%

주. Cronbach's $\alpha=.88(N=338)$, 요인 부하량 .30 미만은 생략함.

분포 범위는 14점에서 39점이었고, 전체 평균은 2.74로서 평균치에서 남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대로 5개의 문항이 요인 1, 2 모두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척도의 요인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단일 요인으로 가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고찰하면,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3가지 이론적 영역이 실생활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비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본 연구자가 제작한 자기고양 편파 척도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기고양 편파 경향이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자기고양 편파 척도와 자기 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및 대

인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Taylor와 Brown(1988)의 주장대로 자기고양 편파 경향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잘 적응한 것이라면, 자기고양 편파는 자기 존중감 및 생활만족감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며, 고독감 및 대인불안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

서울과 지방 소재 3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24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분적으로 응답하거나 무선적 반응 경향성이 의심되는 9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38명(남 107명, 여 131명, 평균 연령 20.74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

자기고양 편파

예비조사에서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10문항의 자기고양 편파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점)’에서 ‘완전히 그렇게 생각한다(4점)’의 4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점수 분포 범위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40점까지였으며, 평균치는 2.81이었다.

자기 존중감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질문지를 사용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분포 범위는 최저 16점에서 최고 40점, 평균치는 3.07이었다.

생활 만족감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 (1985)이 개발한 5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점수의 분포 범위는 5점-24점, 평균치는 3.00이었다.

고독감

‘UCLA Loneliness Scale’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독감을 표현하는 9개의 문항과 소

속감, 우정, 동료애, 친밀감 등을 표현하는 11개의 문항을 4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Cronbach's α 는 .89에서 .94 사이인데(Russell, 1996),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점수의 분포 범위는 21점-70점, 평균치는 2.19이었다.

대인불안

Leary(1983)의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대일의 대인관계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교적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는 .87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 범위는 26점-66점이었고 평균치는 3.05이었다.

결 과

10문항으로 확인한 자기고양 편파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로서 예비조사 결과(.87)와 유사했다. 10문항에 대한 평균치는 2.81로서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2.74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평균치에서의 남녀 차이는 예비조사의 결

표 2. 각 척도의 상관관계와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자기고양	자기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불안
자기고양	.88				
자기존중감	.52***	.84			
생활만족감	.36***	.59***	.77		
고독감	-.40***	-.55***	-.47***	.92	
대인불안	-.35***	-.41***	-.36***	.58***	.88

주. *** $p < .001$, 대각선의 굵은 숫자는 각 척도의 Cronbach's α

과와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고양 편파 경향과 심리적 적응 지표들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자기고양 편파 경향은 심리적 적응 지표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고양은 자기 존중감과 .52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생활만족감과의 상관관계는 그보다 다소 낮은 .36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활만족감은 자기고양보다는 자기 존중감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생활만족감과 자기 존중감의 상관관계($r=.59$)는 흥미롭게도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Diener와 Diener(1995)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보인 상관관계(남; $r=.57$ 과 여; $r=.61$)와 유사한 것이었다. 심리적 적응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긍정적 적응 지표들과 부정적 적응 지표들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반대 경향의 적응 지표들의 상관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들의 상관관계에 근거할 때, 자기고양보다는 자기 존중감이 심리적 적응 지표들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자기고양 편파 경향으로도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제작한 자기고양 편파 척도를 다른 문화권에는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의 자기고양 경향 정도가 다른 적응 지표들의 수치와 비교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자기고양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 정도는 얼마나 강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독일을 선택하였다. Hofstede(1991)가 보고한 개인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53개국 중에서 43번째(개인주의 지수 18)이고 독일은 15번째(개인주의 지수 67)로서 양국이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성인, 특히 노동자 집단으로 확대하였다. 자기고양 편파의 특성상 학력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방 법

연구 2

연구 1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고양 편파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심리적 적응 지표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고양 편파가 나타나지 않으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높은 자기고양 편파는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서구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라 할

조사 대상자

한국 대학생

서울 지역 소재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3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은 126명(평균 연령 21.09세)이었고, 여학생은 110명(평균 연령 20.31세)이었다. 남녀 학생 전체의 평균 연령은 20.72세였다.

한국 노동자

국내 모 전자 회사에 근무하는 남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6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남자 근로자들은 124명(평균 연령 36.06세)이었고, 여자 근로자는 37명(평균 연령 23.59세)이었으며 성별 미확인이 2명이었다. 근로자들 전체의 평균 연령은 33.36세였다. 전체 근로자들 중 전문대 중퇴자가 2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고졸의 학력이었다.

독일 대학생

독일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은 63명(평균 연령 23.87세)이었고, 여학생은 184명(평균 연령 23.45세)이었다. 전체 평균 연령은 23.56세로 한국 대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노동자

한국의 노동자들이 단일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에 비해 독일 노동자들의 직업 배경은 다양한 편이었다. 남자는 84명으로 평균 연령 34.29세였고, 여자는 18명으로 40.06세였으며 성별 미확인은 12명이었다. 114명 전체의 평균 연령은 35.08세였다. 독일 노동자들의 학력 역시 모두 고졸이었다.

측정 도구

예비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만, 자기고양 편파 척도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2개 문항의 표현을 다소 수정하였다. 대학생용과 노동자용으로 사용한 2개 문항의 표현 차이는 다

음과 같다. 본 연구의 자기고양 편파 척도의 문항은 독일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심리학자가 번역하였다.

<대학생용 문항>

- * 조금만 신경쓴다면 이번 학기의 내 성적은 최상위권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 * 나는 앞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보다 앞서 나갈 자신이 있다.

<노동자용 문항>

- * 조금만 신경쓴다면 나의 업무 실적은 최상위권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 * 나는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누구보다 앞서 나갈 자신이 있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독일 대학생과 독일 노동자 집단에서 자기고양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한국에서 제작하여 외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임에도 각각 .84와 .89로 상당히 신뢰로운 것으로 나왔다. 특히 독일 노동자 집단의 경우에는 서구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Rosenberg의 자기 존중감 척도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고양 척도의 내적 일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나머지 척도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도 모두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별로 자기고양 척도와 적응 척도들의 상관관을 구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의 좌측단에 있는 대학생 집단의 경우 자기고양과 자기 존중감의 상관관은 한국 대학생들이 .61인데 비해

표 3. 집단별 각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 s α)

		자기고양	자기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불안
한 국	대학생(n=236)	.88	.84	.77	.92	.89
	노동자(n=163)	.82	.78	.79	.89	.86
독 일	대학생(n=247)	.84	.84	.79	.88	.89
	노동자(n=114)	.89	.77	.83	.87	.86

표 4. 집단 별 각 척도의 상관관계

	자기고양	자기존중감	생활만족감	고독감	대인불안
자기고양		.42***	.27***	-.44***	-.32***
		.23*	.42***	-.15	-.20*
자기존중감	.61***		.38***	-.51***	-.43***
	.37***		.32***	-.62***	-.42***
생활만족감	.46***	.63***		-.34***	-.37***
	.30***	.56***		-.35***	-.18
고독감	-.40***	-.57***	-.55***		.65***
	-.09	-.46***	-.45***		.49***
대인불안	-.36***	-.46***	-.41***	.54***	
	-.33***	-.40***	-.32***	.47***	

주. 대각선 기준으로 좌하는 대학생 집단, 우상은 노동자 집단이며, 각각의 상단 굵은 상관치는 한국, 하단의 가는 상관치는 독일임.

* $p < .05$, ** $p < .01$, *** $p < .001$

독일 대학생들은 .37이었다. 자기고양과 나머지 척도들의 관계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이 독일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기고양 척도 하나만을 사용할 경우 독일 대학생들보다 한국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의 우상단에 있는 노동자 집단의 경우에도 한국과 독일의 차이가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자기고양과 자기 존중감의 상관은 .42로서 한국 대학생들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독일 노동자들의 .23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자

기고양과 생활 만족감의 상관은 한국 노동자들 (.27)보다 독일 노동자들(.42)이 더 높게 나타나 대학생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독일 노동자들의 경우 생활 만족감을 제외한 다른 척도들은 자기고양과 상관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일 노동자들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고양 척도로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고양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이 한국 표집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독일 표집의 경우에는 대학생 집단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척도에 대한 집단 별 평균치를 구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척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러한 차이는 주로 한국과 독일 표집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한국과 독일 표집 내에서 대학생과 노동자간 차이는 일부 척도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를 보면, 한국 표집에서 대학생과 노동자간의 집단 간 차이는 자기 존중감과 생활만족감에서만 유의미하였고 나머지 척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독일 표집의 경우는 대인불안에서만 대학생과 노동자의 집단간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모든 척도에서는 아무런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각 척도에서 한국과 독일 표집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고양이 평균치는 한국 표집이 독일 표집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지표인 자기 존중감과 생활만족감은 독일 표집이 한국 표집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반대로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지표인 고독감과 대인불안은 한국 표집이 독일 표집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표집에

서 척도에 대한 반응 경향성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배경이 현저하게 다른 두 집단의 평균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즉, 동일한 행동 양식이라 할지라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떤 문화에서는 적응적인 반응이 다른 문화에서는 부적응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노동자들의 자기 존중감 평균치는 한국 노동자 집단의 기준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독일 노동자 집단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부적응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자기고양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노동자 집단의 심리적 적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고양 점수의 상하 25%를 기준으로 자기고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리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상단부에 제시한 한국 표집의 경우 대학생 집단은 자기고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차이가 모든 심리적 적응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노동자 집단의 경우에는 자기고양 고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대인불안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나타났다.

자기고양이 높은 한국 대학생과 노동자의 경

표 5. 각 척도에 대한 집단별 평균치와 변량분석 결과

	한 국		독 일		평균(표준편차)	F
	대학생	노동자	대학생	노동자		
사 례 수	236	163	247	114		(3, 756)
자기고양	2.86 _a	2.79 _a	2.35 _b	2.40 _b	2.61(.54)	57.24***
자기존중감	3.12 _b	2.96 _c	3.35 _a	3.45 _a	3.21(.46)	44.59***
생활만족감	2.92 _b	2.61 _c	3.54 _a	3.44 _a	3.13(.82)	68.03***
고독감	2.21 _a	2.12 _a	1.78 _b	1.75 _b	1.98(.47)	56.83***
대인불안	3.11 _a	2.97 _a	2.76 _b	2.42 _c	2.87(.64)	37.09***

주. *** $p < .001$, 아래 첨자는 Scheffe 사후비교 결과임.

우에는 자기고양 점수에서부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3.36과 3.19). 각각 자기 집단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한국 대학생들이 한국 노동자들보다 자기고양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기고양 점수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노동자 집단간에는 자기고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고양이 높은 한국 대학생과 노동자 집단은 자기 존중감과 생활만족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고독감과 대인불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고양이 낮은 한국 대학생과 노동자 집단은 대인불안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의 하단부에 제시한 독일 표집에서 자기고양 고저에 따른 집단간 적응 차이가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기 존중감, 생활만족감, 대인불안에서 나타났다. 독일 노동자의 경우에는 자기고양 고저에 따른 집단간 적응 차이가 생활만족감에서만 나타났다. 한국 표집에 비해 독일 표집에서는 자기고양 고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자기고양이 높은 독일 대학생과 노동자 집단은 자기고양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과 달리 독일 표집에서는 노동자가 대학생보다 자기고양 점수가 높았다. 자기고양 점수가 낮은 독일 대학생과 노동자 집단은 자기고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고양이 높은 독일 대학생과 노동자 집단은 모든 심리적 적응 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국 표집에서 자기고양이 높은 대학생과 노동자 집단이 자

표 6. 자기고양의 고저에 따른 집단별 평균치와 변량분석 결과

한 국	대 학 생		노 동 자		평균(표준편차)	F
	고	저	고	저		
사 례 수	73	69	44	54		(3, 236)
자기고양	3.36 _a	2.32 _c	3.19 _b	2.41 _c	2.82(.53)	294.82***
자기존중감	3.44 _a	2.79 _c	3.12 _b	2.76 _c	3.04(.48)	46.78***
생활만족감	3.27 _a	2.44 _{bc}	2.80 _b	2.40 _c	2.75(.77)	23.80***
고독감	1.99 _b	2.46 _a	1.87 _b	2.29 _a	2.17(.48)	23.00***
대인불안	2.84 _b	3.36 _a	2.78 _b	3.07 _b	3.03(.59)	14.86***
독 일	대 학 생		노 동 자		평균(표준편차)	F
자기고양	고	저	고	저		
사 례 수	73	68	30	32		(3, 199)
자기고양	2.96 _b	1.72 _c	3.24 _a	1.66 _c	2.38(.73)	399.47***
자기존중감	3.54 _a	3.19 _b	3.65 _a	3.37 _{ab}	3.41(.43)	13.42***
생활만족감	3.80 _a	3.31 _b	3.90 _a	3.37 _b	3.52(.81)	14.81***
고독감	1.71	1.80	1.59	1.78	1.73(.39)	2.12
대인불안	2.48 _b	3.05 _a	2.19 _b	2.49 _b	2.63(.70)	16.00***

주. *** $p < .001$, 아래 첨자는 Scheffe 사후비교 결과임.

기 존중감과 생활만족감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발생한 것과 다른 결과인 것이다. 자기고양이 낮은 독일 대학생과 노동자 집단은 한국 표집과 동일하게 대인불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관찰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람들에게서 자기고양 편파 경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행되었다. 예컨대, 한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속담은 개인의 능력을 비현실적으로 과장되게 지각하는 내용으로 자기고양 편파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라는 속담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자기고양 편파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에는 자기고양 편파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 속에 자기고양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에게서도 자기고양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었다.

자기고양 편파를 구성하는 한 요인으로 통제의 착각을 들 수 있다. 통제의 착각이란 확률이나 운과 같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하는데, 도박이나 경마, 복권 구입 등의 현상에서 잘 볼 수 있다. 얼마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로또 복권 열풍이 불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

대되고 있다. 그러나 로또 열풍이 불기 이전부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좋은 꿈을 꾸면 복권이나 한 장 산다는 생각이 아주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다. 이것은 꿈이라고 하는 비현실적 현상에 기대어 복권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전형적인 통제의 착각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대박 증후군’이 널리 침투되어 있는 현상은 통제의 착각 현상이 도를 지나쳐 사회적 병리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이처럼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비교적 강한 자기고양 경향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자기고양 경향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기고양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한국인에게서 자기고양 경향이 나타나는지, 또한 한국인의 자기고양 경향이 심리적 적응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자기고양 경향을 비교 문화적 차원에서 고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고양 경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를 제작하였다. 연구 1의 결과에 근거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고양 척도는 비교적 신뢰로운 편이었으며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고양 경향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자기고양 경향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력이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은 일종의 선택된 집단이며,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4, 50

대의 중장년층보다 스스로를 가능성이 많은 세대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자기고양 편파 경향이 한국 대학생 집단의 문화적 특수성 때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경험하지 못한 성인 노동자 계층으로 조사 대상의 범위를 넓혀 한-독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 집단과 노동자 집단은 자기고양 경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독일의 경우에도 대학생 집단과 노동자 집단 사이에 자기고양 경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고양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 정도는 독일 집단에 비해 한국 집단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고양 경향이 나타나지 않으며, 자기고양보다는 자기비판과 같은 특성이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현상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집단과 노동자 집단의 심리적 적응 지표에서도 한국과 독일의 차이가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자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자기 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노동자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생활 만족감에서도 독일은 노동자 집단과 대학생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한국 표집에서는 노동자 집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이며, 미래의 전망도 불투명한 한국 대학생 집단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생활 만족감 수준이 더 낮게 나온 것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으로 보인다. 더구나 본 연구의 조사에 포함된 한국 노동자들이 업계 최고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대기업의 전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자기고양 경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척도를 다른 문화권에 적용해 보았다는 점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많은 제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본 연구자 제작한 자기고양 편파 척도가 실제로 자기고양 경향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Taylor와 Brown(1988)의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자기고양 편파는 적어도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Taylor와 Brown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문항을 구성하였지만 예비 조사를 거치면서 많은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척도의 요인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고양의 여러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자기고양의 측정이 준거 문제와 얽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측정 방법의 다양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명시적 행동에서는 자기겸양이나 자기비판의 경향을 보이지만 암묵적으로는 자기고양적 경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측정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세련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사안이나 자신의 개입 정도, 자신이 처한 맥락에 따라 자기고양의 빈도와 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내외집단의 구별이 유난히 강하고 장유유서의 전통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의 속성이나 맥락에 따라 자기고양이 표출되는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이 상당히 강한 자기고양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확인했

지만, 도대체 한국인들이 어떤 이유에서 강한 자기고양 경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인들이 드러내는 자기고양 경향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착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영숙 (1990). 자아방어 진단검사 표준화 예비연구. *이화대의대지*, 13권 3호, 233-242.
- 제일기획 마케팅연구소 (1997). 98 한국인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 서울: 경문사
- 최상진, 박정열, 이장주 (1997). 한국인의 우쭐 심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391-400.
- Banaji, M. R., & Prentice, D. A. (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297-332.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1993). When ego threats lead to self-regulation failure: Negative consequences of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41-156.
- Block, J., & Colvin, C. R. (1994). Positive illusions and well-being revisited: Separating fiction from fact. *Psychological Bulletin*, 116, 28.
- Brown, J. D. (1986). Evaluations of self and others: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ements. *Social Cognition*, 4, 353-376.
- Campbell, J. D. (1986). Similarity and uniqueness: The effects of attribute type, releva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81-294.
- Campbell, J. D., & Fehr, B. (1990).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conveyed impressions: Is negative affectivity associated with greater re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22-133.
- Colvin, C. R., & Block, J. (1994). Do positive illusions foster mental health? An examination of the Taylor and Brown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3-20.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52-1162.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6). Psychometric truths in the absence of psychological meaning: A reply Zuckerman and Kne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252-1255.
- Coyne, J. C., & Gotlib, I. H. (1983). The role of cognition in depression: A critical reappraisal. *Psychological Bulletin*, 94, 472-505.
- Diener, E. (1984). Subject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 measure of glob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unning, D., Meyerowitz, A., & Holzberg, A. D.

- (1989). Ambiguity and self-evaluation: The role of idiosyncratic trait and definition in self-serving assessments of 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82-1090.
- Gotlib, I. H., & Meltzer, S. J. (1987). Depression and the perception of social skill in dyadic interac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41-54.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iggins, E. T. (1996). The "Self Digest": Self-knowledge serving self-regulatory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62-1083.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차재호, 나은영 역,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45-1267.
- Leary, M. 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6-75.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Smith, J., & Moreland, R. L. (1985). Role of the self-concept in the perception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494-1512.
- NAMHC (1996). Basic behavioral science research for mental health: Sociocultural and environmental processes. *American Psychologist*, 51, 722-731.
- Paulhus, D. L., & Reid, D. B. (1991). Enhancement and denial in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307-31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0-40.
- Seeman, J. (1989). Toward a model of positive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 1099-1109.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 Brown, J. D. (1994). Positive illusions and well-being revisited: Separating fact from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21-27.
- Taylor, S. E., Kemeny, M. E., Reed, G.M., Bower, J.

- E., & Gruenewald, T. L. (2000). Psychological resources, positive illusions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5, 99-109.
- Zuckerman, M., & Knee, C. R. (1996). The relation between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 and adjustment: A comment on Colvin, Block, and Funder(1995).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250-1251.
- 1 차원고접수일 : 2003. 9. 4.
최종원고접수일 : 2003. 10. 28.

Cross-cultur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nhancement Bia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Seong-Yeul Han

Korea University

Two investigations were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nhancement bia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study 1, a scale for measuring the self-enhancement bias was construct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nhancement bia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was examined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was significant in Korean college students. At study 2, college students and laborers in Korea and Germany participa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It was significant both samples. This is very interesting result because it is reverse the existing outcomes that there are no self-enhancement bias and no relationship between self-enhance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collective cultures. It is need to develop more refined measure tool and to do comparison with various cultures for more profound research on self-enhancement bias and cultural difference.

key words : self-enhancement bias, psychological adaptation, cross-cultural study